사르트르의 사상과 문학

2 주(2010.9.13):

실존주의 등장 배경,

계보 및 몇몇 원칙

I. 시작하며

* 강의주제:

- 실존주의(cf. 사르트르의 실존주의) 등장 배경; 계보; 원칙
- 약간의 수정 : '참여문학론'에 대한 강의 필요성
- 2 주: 2-3 주로 예정된 강의를 합해서 진행; 3 주 : 『구토』론; 4 주 : 참여문학론의 순으로;

*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등장 배경 :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노력;

* 계보 :

- 광의의 실존주의; 협의의 실존주의; 유신론적 실존주의; 무신론적 실존주의
- 파스칼; 키에르케고르; 니체; 야스퍼스; 하이데거; 사르트르; 카뮈, 등
- 파스칼; 도스토예프스키; 카프카; 말로; 생텍쥐페리; 보부아르; 사르트르, 등

II. 20 세기 실존주의 등장 배경

* 20 세기 : 엄청난 변화의 세기;

-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불신이 극에 달한 세기
- "인간이 인간에 대해 늑대(homo homini lupus)"라는 홉스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
- 1, 2 차 세계대전
- 카뮈의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문

> "1 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태어나서, 히틀러의 권력과 최초의 혁명재판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을 때 스무 살이 된 사람들, 곧이어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전쟁, 2 차 세계대전, 집단수용소의 세계, 고문과 감옥에 직면했던 사람들, 그들은 오늘날 핵무기에 의한 파괴의 위험 속에서 그들 자식들과 작품을 길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제 생각으로는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"

* 사르트르

- 『존재와 무』에서 '나'와 '타자'의 갈등 = 서로가 서로를 객체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;
- 『변증법적 이성비판』에서도 마찬가지; 인간은 치명적인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;

> "실제로 인간에 대해 그 어떤 것도 ―맹수도 바이러스도― 인간의 지성을 이해할 수 있고, 좌절시킬 수 있으며, 정확히 인간의 파괴가 자신의 목적일 수 있는 지성을 가졌고, 육식을 하는 잔인한 종보다 더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."

* 리쾨르(P. Ricœur)의 구분 : “고무된(혹은 고양된) 코기토(cogito exalté)”와 “모욕당한 코기토(cogito humilié)” 혹은 “상처입은 코기토(cogito blessé)”;
- 고무된 코기토 : 중세 -> 데카르트 -> 칸트 -> 헤겔로 이어지는 전통; 인간의 주체로서의 지위 확인, 강조; 인간에 대한 희망; 낙관주의, 특히 19 세기의 낙관주의;
- 모욕당한 코기토 혹은 상처받은 코기토 : 니체-프로이트-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전통; 인간의 주체로서의 지위 해체; 인간의 위대함 상실;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 박탈;
* 1, 2 차 세계대전;
-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 부여했던 전통적 의미,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, 이성과 자유를 신뢰하는 존재이며, 도덕적 주체이며,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존재라는 등의 의미가 모든 증발; 기독교적 가치관;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등도 쇠퇴;
- 인간의 인간에 대한 기대, 신뢰감, 희망 등이 바닥을 친 상태;
- 유태인 대학살 이후에 어떤 예술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절규;
* 실추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 : 20 세기 실존주의; 이처럼 곤두박질 칠대로 친 인간성을 다시 고양시키고자 하는 노력; “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”라는 주장에 담긴 내용;

III. 실존주의 계보

III.1. 유신론적 실존주의

III.1.1. 파스칼

* 인간 : 비참함(misère) + 위대함(grandeur); 생각하는 갈대(roseau pensant);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함; 초월적 존재로의 귀의; 파스칼의 회심(回心) => 숨은 신을 향해;

> “인간은 분명히 사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이것이 모든 존엄이고 모든 가치이다.”
> “사유 - 인간의 모든 존엄은 사유에 있다. 그러나 이 사유란 무엇인가. 그 얼마나 어리석은가.”
> “그러므로 그는 비참하다. 사실 비참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인간은 진정 위대하다.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.”

* 사유의 한계 : 상상력, 습관 등
* 위무(慰撫: divertissement);
Cf. 데카르트 : 방법적 회의와 코기토; 인간의 위대함;
I

II.1.2. 키에르케고르

* 새로운 문제 제기 : 철학의 문제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문제에서 인간의 내적 경험에 대한 문제로 이동시킴;
* 헤겔과 콩트에 대한 반대: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포획될 수 있다는 헤겔과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,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콩트에 대한 반대
* 헤겔과 콩트의 이론의 한계 : 개인의 특수성, 개별성, 유일성; 즉 구체적이고, 현실적이고, 분노하고,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포획할 수 없음;
* 인간 => 선택(『이것이냐 저것이냐』), 불안, 고뇌; 결단; 전율(『공포와 전율』)의 존재;

* “불안은 자유의 현기증”; “불안은 자유의 가능성”; “진리는 주체성이다”; cf. 수은은 아무리 내려쳐도 수은으로 남아 있다;
* 실존의 문제는 또한 가치의 문제 : “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무엇”;
* 삶에 대한 태도 : 세 단계 : 미학적 단계 => 윤리적 단계 => 신학적 단계;
* 결국 신을 향한 실존의 여정;

III.1.3. 야스퍼스

* ‘실존철학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;
* 야스퍼스의 초월적 실존철학;
* 세 과정 : 철학적 세계정립 => 한계상황에서의 실존설명 => 초월자를 향한 초월의 형이상학;
* 철학적 정위(定位) : 세계의 존재에 대한 전망과 방향, 곧 의미를 부여; 하지만 일상적 개인(cf. 실증주의; 관념론)은 제대로 할 수 없음;
* 실존해명: 한계상황에서 질문의 방향을 ‘세계’에서 ‘나’에게로 돌림; ‘나’의 존재에 대한 해명; 소통(나와 타인); 역사성(시간성)을 가진 개인; 자유와 책임; 의존과 대립 사이의 긴장;
* 초월적 실존철학 : 초월자를 향한 행보;

Cf. 가브리엘 마르셀;

III.2. 무신론적 실존주의

* 니체: 신은 죽었다; 모든 가치를 전복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철학; 초인 사상;
* 하이데거: 존재에 대한 망각; 존재자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; 존재의 목소리 해석;
* 카뮈: 부조리; 부조리에 대한 자각; 시시포스의 절망적 노력; 반항인;

IV.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몇몇 원칙들

IV.1. 신의 부재

* 사르트르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려 하는 것은 아니나, 학문적 가정으로 신의 부재를 가정;
* 도스토예프스키의 “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.”;
* 실존주의의 제 1 원리;

IV.2. 실존(existence)은 본질(essence)에 앞선다

* 제 1 원리의 당연한 결과로 “실존은 본질에 앞선다”는 명제가 성립;
* 종이칼의 예;
*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;
* existence : ex-(탈격); sistere(be; être)의 합성어;

IV.3. 기투(企投; pro-jet)와 선택(choix)

* 인간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앞으로 내던지는 존재이다
* se projeter; se(자기 자신) pro(앞으로) + jeter(내던지다)

* 인간은 매 순간 스스로 선택을 하는 존재이다

IV.4. 자유(liberté)와 책임(responsabilité)

*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를 받았다
*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
*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

IV.5. 진정한(quthentique) 삶과 비진정한(inauthentique) 삶

* 진정한 삶 : 자유와 책임 하에 영위하는 삶; 실존적 삶; 주체적 삶 => 윤리외 도덕;
* 비진정한 삶; cf. 살로들(salauds)의 삶 => 자기기만(mauvaise foi)적 삶

V. 마치며

* 협의의 실존주의; 광의의 실존주의;
* 오랜 전통;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;
* 무신론적 전통과 유신론적 전통;
*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전통에 충실;